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3월 19일(주일) 제1434호

## ‘생명을 살리는, 선교하는 NGO’



르완다 ECD센터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 3월 18~19일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정기후원 약정서 작성, 전화 및 홈페이지 참여

“NGO 더멋진세상의 도움으로 새로운 교실이 생겼고, 컴퓨터와 TV 등을 기증해 주셔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봉교실 덕분에 멀리 나가지 않고, 아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집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생명을 살리고, 선교할 기회가 왔다. 3월 18일(토)과 19일(일)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한다. ‘생명을 살리는, 선교하는 NGO’를 주제로 진

행된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에는 온누리교회 예배에서 나눠주는 정기후원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QR 코드)에서 동참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0년 창립한 온누리교회 소속 국제개발 NGO다. 지구촌 곳곳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긴급구호’, ‘난민지원’, ‘더멋진마을조성사업’, ‘취약계층 생명 살리기’, ‘다음세대 희망 심기’ 등의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몰도바 호수복원 사업 등을 진행했

다. 올해는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긴급구호,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는 “NGO 더멋진세상은 온누리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지구촌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은 나눌수록 그 은혜가 배가 되는 데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8면>.

문의: 02-2271-224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온누리교회 이주민 선교 30주년 감사예배

노규석 목사 등 150여 명 참석

온누리교회 이주민 선교가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는 ‘온누리교회 이주민 선교 30주년 감사예배’를 지난 3월 11일(토) 안산M센터에서 드렸다.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 본부장), 김창욱 전도사(초대 온누리M센터장), 이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노규석 목사는 “올해는 새로운 온누리교회 이주민 선교 30년을 준비하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누리교회 이주민 선교는 1993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바자회’에서 태동했다.

## 습관과 문화가 자리잡는

###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벌써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체리앱에 온누리교회 성도 358명이 가입했고, 참여 후기가 958건(3월 15일 기준)이나 등록됐다.

신광호 순장(송파A공동체)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머그컵을 사용하는 일이 환경을 지키는 정말 쉽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새삼 알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조아라 성도(남양주온누리교회)는 “일회용품을 줄이려고 텀블러, 머그컵,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다”면서 “앞으로 이 좋은 문화가 더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고 소

감을 밝혔다.

3월 19일(일)부터 25일(토)까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제는 ‘계절’이다. 실천 사항은 ‘음식 남기지 않기’, ‘일터 청소 및 정리하기’ 등이다. 더 다양한 실천방법을 체리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체리앱을 설치하고, ‘MY단체’에 온누리교회를 등록한 다음 ‘캠페인’ 란에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선택하면 된다.



/ 김영선 기자

##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

4월 16일과 23일

4월 16일(일)과 23일(일) 장애인 고용시설 ‘굿월스토어’와 함께 기증 캠페인을 한다.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은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 직업재활과 지원 고용 등에 쓰인다.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교회에 설치되는 ‘굿월스토어 수거함’에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가방, 잡화, 도서, 음반, 주방용품, 생활용품, 소형 가전제품, 유아용품 등을 넣으면 된다. 수선이나 세탁이 필요한 의류, 사용한 흔적이 있는 물품, 파손되었거나 더러운 제품, 대형 가구나 설치가 필요한 전자제품, 오래된 아동전집은 기증할 수 없다.

굿월스토어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자선이 아닌 기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발달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 18개 매장에서 장애인 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문의: 1533-0091

## 온라인커뮤니티 개강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Onnuri Online Community; 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3월 28일(화) 개강한다. 이번 학기 온라인커뮤니티는 3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한건수 대표(국민대 겸임교수) 강의,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 온라인커뮤니티 담당)의 <생명의 삶> 묵상 말씀, 소그룹 모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20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맞춤 온라인 공동체다. 개인 사정으로 공동체에 소속할 수 없었던 성도, 공동체 활동에 무관심했거나 혼자 신앙 생활하는 성도, 전도 대상자, 구도자가 그 대상이다.

문의: 02-3215-3214

/ 정현주 기자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오늘 본문은 27절이나 됩니다. 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총 35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기록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기쁨으로 동역했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고난 받았던 이들이기에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외에 주소록에 기록되고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성도들의 이름을 몇 명이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 분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가난한 신학생 시절, 다른 교회 교육전도사 시절 제 모습이 조금 누추해 보이셨는지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전도사님을 제 아들처럼 생각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덕담인줄 알고 “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철마다 옷이 필요하면 옷을, 반찬이 필요하면 반찬을 주셨습니다. 반찬이 필요한 때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을 주셨습니다. 저를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필요를 채워주고 싶으셔서 저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후에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찾아보았더니 지방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왜 지방에 계신가요?”라고 했더니 남편이 사업을 무리하게 하다가 파산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빚을 한 푼이라도 더 갚으려고 지방으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신실한 믿음으로 사시는 모습과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목회 여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많은 분의 지원과 중보기도와 협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많은 중보기도자도 있습니다. 그 귀한 중보기도로 인해서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그분들의 얼굴과 이름, 때로는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온누리교회 역사 속에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며 협력하신 모든 성도의 이름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할 때처럼, 하나님이 하늘나라 생명책과 역사책에 귀하게 기록하실 줄 믿습니다.

## 사랑으로 문안하고 기록으로 경계하라

로마서 16:1~27

##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들

<로마서> 16장에 35명의 이름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 특이합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 대개 문제를 일으키거나 모범이 되었던 몇 사람의 이름만 잠시 열거될 뿐인데, 유독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학자들이 의아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 다른 곳으로 갈 편지가 잘못 편집된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성도들, 특히 로마를 중심으로 왕대하며 만났던 사람들임이 틀림없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왕대가 있었고, 로마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뻗은 여러 경로와 이유로 왕대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함께 동역하게 된 이들과 로마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열거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와 에베소에도 있었지만 원래 로마 출신입니다. 이 두 사람처럼 여러 경로로 사도 바울을 만났고, 동역했고,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사랑의 문안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 모두 다릅니다. 그들에게 각기 다른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만난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바울과 함께 일하게 된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만나게 했고, 공동체로 묶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교리적인 논쟁을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한 영혼을 세우고, 돌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문안하는 이들은 모두 이름 없이 헌신한 성도들입니다. 간략하게 이름을 언급하고 칭찬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들에 대해 남아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사도 바울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구했다고 했습니다(4절).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는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7절). 수고를 더 많이 한 사람들 마리아와 베키스를 기억합니다. 사도 바

울이 문안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종, 계층, 직업, 성별이 다양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메는 노예 신분으로 확인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황제의 가까운 친구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아리스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평민처럼 살았고, 여전히 글라우디오 황제와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황제와 가까운 친구부터 노예 신분까지 다양한 신분의 계층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아시아 최초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마리아, 안드로니코, 유니아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 차별 없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9명의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리더십 역할을 감당했던 공동체였다는 뜻입니다. 특히 브리스가는 남편인 아굴라보다 훨씬 앞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그녀의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1절에 나오는 ‘뵈뵈’라는 여인은 여성 사업가로 확인됩니다. 여성 사업가로서 왕대를 자주했기에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받아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 뵈뵈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 당시 성도들이 여러 교회를 왕대하면서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뵈뵈 뿐만 아니라 아운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르도바, 허마 등의 이름도 사업가 그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 남성과 여성, 여러 인종이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녹아져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 영혼을 돌보는 문안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이들 중에 주목할 이름이 나오는데, 13절에 등장하는 ‘루포’입니다.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 지쳐서 걸을 수 없자 로마 병사가 구레네 출신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루포는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시몬의 아들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루포가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레네 출신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성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 보게 된 사람입니다.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복음 안에 굳게 서고,  
복음에 더 순종하고,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구레네 출신 시몬과 그의 아들 루포, 그의 어머니가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으로도 문안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여덟 사람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가장 가까운 디모데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친척들 누기오, 아손, 소시바더, 〈로마서〉를 기록할 때 옆에서 받아 적은 더디오,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 재무관 에라스도, 그의 형제 구아도 등의 이름을 알려 주면서 함께 문안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중요한 일은 문안입니다. 서로 기억하고 생각하며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억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을까요? 기억력이 아니라 기도의 힘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기도와 사랑에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등장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사도 바울이 섬겼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문안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협력하고, 서로 문안하고 돌보는 성도들의 이름이 사도 바울처럼 계속 많아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의 축복이요,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 ‘거룩한 경계’를 명하다

바울은 사랑으로 문안하면서 끝맺는 것처럼 보였는데, 매섭고 날카로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아첨, 현혹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일을 경계하라는 ‘거룩한 경계’를 명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에 역행해 분열을 일으키고 궤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17~18절).

복음에 역행해서 분열과 궤방, 현혹하고, 아첨하는 거짓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든, 어떤 교회든지 이런 이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저항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하는 내내 거짓 선생들, 사기꾼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많은 사이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자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도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도리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아니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분열, 거짓, 아첨으로 자신을 따르게 하는 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계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경계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경계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순진하라”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

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19~20절).

우리 영혼을 진리로 계속 교훈하면 선한 일에는 순진하고, 악한 일에는 지혜롭게 됩니다. 우리는 악의 실체를 경계하면서 악에 대해 궁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을 연구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 악한 것도 경험해 봐야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악은 경험해야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악은 연구할 필요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는 순진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선을 더 묵상하고, 마음에 채우고, 더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 연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역사의 통로가 된 분들의 삶을 연구하고, 그들처럼 살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는 사용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지혜를 선한 쪽으로 사용하는지 나쁜 쪽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순진하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성도들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순다고 했습니다. 승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려고 사탄을 우리 발로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를 부숨으로 승리를 이루셨고,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도록 사탄을 발로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 속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해야 합니다.

#### 복음에 대한 장엄한 선언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장엄한 선언으로

다시 돌아와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따라, 그리고 비밀의 계시를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춰져 오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됐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로 인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25~27절).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비밀스럽게 계시되어 왔는데 이제는 밝히 드러났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알려져야 합니다.

복음은 인간이 발명하고,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새로운 통찰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원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가 복음을 기획하고, 역사를 움직여서 사람들이 믿도록 계획하고 체계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졌고, 우리를 통해서 전해짐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그분께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복음 안에 굳게 서고, 복음에 더 순종하고,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문안했던 여러 사람의 이름처럼, 이 세상 역사에는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과 하나님 나라의 사도 행전적 역사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소중히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삶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 과학주의가 기독교에 끼치는 해악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기독교 철학자인 J.P. 모어랜드는 과학주의를 “물리학, 화학, 생물학 같은 자연과학만이 실재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라고 정의했다. 현대는 과학이 이

러한 발견들과 그것들을 응용한 기술을 사용해서 이전 시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생산, 이동, 건강, 정보교환 등을 이룩했다. 과학의 실적 때문에 과학주의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진화론을 앞세운 과학주의는 기독교의 믿음을 이성과 합리성의 테두리 밖으로 몰아내면서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조롱하게 만든다. 이런 사회적 압력 때문에 그리스도인 중에도 창조론에 대해서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모어랜드는 저서 <과학, 과학주의 그리고 기독교>에서 과학주의의 목표는 기독교의 주장을 타당성 범위 밖으로 몰아내는 거라고 주장했다. 우리를 둘러싼 문화가 과학주의로 충만해 있을 때 그것이 타당성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되고, 모든 사람의 인식과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진화론 패러다임은 성경의 가장 앞부분인 창세기 내용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일으킨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

해 본 경험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과학주의는 여러 측면에서 기독교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첫째, 신앙적인 측면이다. 성경 지식에 근거했던 기독교 신앙을 지적 근거를 상실한 맹목적인 신앙으로 만들어 버린다. 기독교의 주장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린다.

둘째, 개인적 삶의 지침 측면이다. 과학주의 이념은 삶의 방향을 진리의 추구에서 즉

렴 적극적이고 한계가 없는 선의 추구는 생각할 수도 없다.

셋째, 자유 추구 방식 측면이다. 자유에 따른 책임을 중시하던 전통적 관점에서 책임의 미니멀리즘 혹은 책임이 없어진 단순한 권리로의 변화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그 책임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관점이 ‘책임은 없는 권리’로 바뀌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경적 의미의 성적인 자유란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결혼 제도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며, 그 결과로 잉태된 생명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책임을

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도 도덕적 항의를 할 수 없다.

과학주의는 세상 속에서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한다. 우리가 과학주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까닭에 세상 속에서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내세울 용기가 없는 것은 세상과의 싸움에 필요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지식은 권위와 용기를 준다. 따라서 과학주의에 동화되는 것을 피하려면 그에 대항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가 없거나 선택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다. 굳건한 지식에 기초한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월버포스는 “변증을 훈련시키는 일은 기독교 교육과 양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에 실패하면 우리 자녀들이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신앙 변화’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학주의에 세뇌된 세대들에게 신앙의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주의라는 가시덤불을 제거할 지식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14장과 20장에서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의문을 끈질기게 제기했다. 믿음이 부족한 제자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확신하도록 답을 주셨다. 과학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마와 같이 질문하는 다음세대와 그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주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 “과학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도마와 같이 질문하고, 그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주는 교회가 필요하다”

각적인 욕구 만족으로 변화시킨다. 과학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분이 주신 인생의 목적, 선악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분과의 관계 등과 관련해서 그 어떤 절대적 기준도 부정한다. 추구할 절대적 기준을 상실한 인간은 현재의 욕구 만족에 최우선 가치를 두게 된다.

셋째, 윤리적 측면이다. 과학주의는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던 삶을 그저 해를 끼치지 않는 ‘미니멀리즘’으로 변화시킨다. 절대자의 존재를 부정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덕률이 사라지게 된다. 단지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할 뿐이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처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성적 자유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제도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원하는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변한 대신, 가정과 생명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되었다.

다섯째, 관용의 의미 변화다. 전통적인 관용은 자신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하는 사람 즉, 그 인격에 대한 관용을 의미하고, 그 반대되는 행위나 생각에 대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반대하고 설득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관용은 자신과 다른 관점을 반대하거나 설득할 수 없고, 그의 의견이 어떻든지 무제한 관용하는 수밖에 없다. 절대적 기준을 거부하기 때문에 상대

##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기독교 세계관과 영역주권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이야기한 영역주권에 대한 인식이다. 둘째, 기독교 변증론(apologetics)적 중요성이다. 영역주권은 기독교인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청지기적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매우 능동적 기능을 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변증론적 기능은 파상적으로 밀려드는 비기독교적 사상으로부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체계로 기독교 신앙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현상이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현대 과학주의 시대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은 네덜란드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 언론인이며 수상을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가 1880년 10월 그가 설립한 자유대학 설립기념사에서 처음 선포했다. 당시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은 로마

시대 이후 약 천 년 동안 모든 영역을 지배해 오던 기독교가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 등에 크게 도전받고 있던 시대였다.

영역주권이란 세상의 모든 영역은 개별적으로 각자 중심점을 가지는 원(circle)으로써 존재하듯이 개별적 주권을 가지되, 그 모든 영역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므로 기독교인은 각자 속한 곳에서 청지기적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영역주권적 사상은 갈릴레오와 함께 과학혁명의 선구자였던 17세기 독일 천체물리학자 요하네스 케플러(Johannes Kepler)의 고백에도 잘 나타나 있다.

“나는 신학자가 되려고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천문학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역주권 사상은 세속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상에 지쳐서 교회를 도피처로 생각하고, 교회 생활에 안주하는 패배주의적 기독교인에게 매우 도전적인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편으

로는 일부 세속화된 교회나 단체가 영역주권을 곡해해서 교회의 승리주의나 세상에서의 교회 패권주의를 강조하는 현상도 매우 경계해야 한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교회가 영웅시한다든지 세상의 모든 영역을 기독교 엘리트로 채움으로써 세상을 지상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은 오히려 국가가 교회, 가정, 문화를 지배하려는 당시 유럽 사회의 반기독교적 분위기에서 선포되었다. 교회의 주권을 국가나 그 어떤 다른 영역이 침해할 수 없다는 방어적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에서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민족적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한결같이 소금이 녹아 그 역할을 다하듯이 겸손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부여해주시신 십자가 대속이라는 영역에서 청지기적 삶의 표본이 되셨다. 하나님은 화려한 최고의 위치가 아니라 각자의 영역

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며 “겸손하고 성실하고 순종으로 임하라”고 가르치신다.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엡 6:5).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득해야 할 가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교육 등 수많은 영역이 기독교인들 앞에 놓여 있다. 그곳은 대부분 세상 권세가 자리 잡고 있다. 소금은 소금끼리 모여 있으면 존재 가치와 의미가 없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녹아야 할 소금이다. 영역주권을 세워야 할 그리스도의 일터는 교회뿐만이 아니다. 교회 밖을 나서자마자 다가오는 세상의 수많은 영역이다.



신무한 장로  
(서빙고공동체, 온누리  
세계관학교 담당)

차세대의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사랑해요!”

이한비, 한해니, 한해와, 김하준 학생의 소감

친구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나요?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매일 자연과 환경을 회복시키는 작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는 캠페인이지요. 창조 순서(빛, 공기, 물, 땅, 계절, 생명, 인간)에 따라 7가지 주제를 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있나요? 이한비 학생(도곡 파워웨이브, OEM Youth, 중2), 한해니 학생(강동 파워웨이브, 중1), 한해와 학생(강동 꿈땅, 초4), 김하준 학생(서빙고 꿈땅, 초2)이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참가하면서 그 소감을 들려줬어요.

이한비 학생은 깨끗한 공기를 회복하는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가까운 거리는 승용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신 걸어다니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고 해요.

“저는 매일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 다니고 있어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려고 하고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올라가기도 실천하고 있어요. 승용차와 대중교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걷는 게 깨끗한 공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좋고, 돈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지구를 위해 모두 함께 걸었으면 좋겠어요.”

김하준 학생은 깨끗한 물과 동물들의 건강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플라스틱컵이나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학교에도 텀블러를 들고 가서 물을 마실 때마다 사용해요. 지난번에 부모님과 아쿠아리움에 가서 바다에 사는 동물 친구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들 배속에 엄청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있대요. 바다 동물들이 더이상 쓰레기를 먹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동물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한해니 학생도 환경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실천을 하고 있어요. 안 쓰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아두고, 이면지를 사용하고, 샤워 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하는 실천들은 정말 작은 것들이지만, 환경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가장 신경 써서 하는 실천은 ‘샤워 시간 줄이기’예요. 샤워할 때 불필요한 물이 많이 낭비된다고 해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많은 양의 전기를 아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작은 것부터 함께 실천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한해와 학생도 누나(한해니 학생)를 따라 작은 실천을 이어가고 있어요. 샤워 시간 줄이기와 냉장고는 필요할 때만 열기, 이면지 사용하기 등을 실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물을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샤워 시간을 줄이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는 나라 친구들을 생각하면 물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돼요. 냉장고도 꼭 필요할 때만 열면 전기를 아낄 수 있어요. 자원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게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모두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빛과 물, 공기 등을 아꼈으면 좋겠어요.”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주제는 ‘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계절을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을 할 차례랍니다. 따뜻하고 싱그러운 봄을 누리면서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친구들도 가족과 함께 고민해보고 실천해보세요.



등하교길에 승용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신 걸어다니는 이한비 학생,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김하준 학생, 쓰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두는 한해니 학생, 새 종이 대신 이면지에 필기하는 한해와 학생(왼쪽부터).

차세대 큐티 간증

“큐티하면서 행복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빙고온누리교회 꿈이자라는팡 유년1부 2학년 12반 현진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침밥 먹기 전에 큐티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2022년 1월 1일부터 큐티를 시작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큐티 말씀은 올해 2월 28일 했던 큐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삼상 17:50~54)라는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

기도록 도와주신 내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직 무릿매와 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사람들을 도망가게 했어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 없이 혼자 싸웠다면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저는 큐티를 하면서 말씀이 더욱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기도하

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앞으로 큐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궁금해하고, 말씀을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큐티하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현진호 학생 (서빙고 꿈땅, 초2)



42. 판단은 주님께 맡겨요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3월 16, 17일 본문 '삼상 23:15~18', '삼상 24:3~7'

1.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사울 왕을 피해 여기저기 도망을 다녔어요. 도망을 다니는 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어요. 그때 \_\_\_이 다윗을 찾아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주었어요(삼상 23:16). 다윗을 위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사무엘 ②요셉 ③요나단 ④예수님

2.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고 겔옷 한 자락만 잘라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 ① 사울 왕의 부하들이 공격할까봐 두려워서
- ②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부탁했기 때문에
- ③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을 보기 부끄러워서
- ④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특집 1. 고령사회와 교회 2. 시니어 사역의 필요성 3. 실버세대를 위한 바로 그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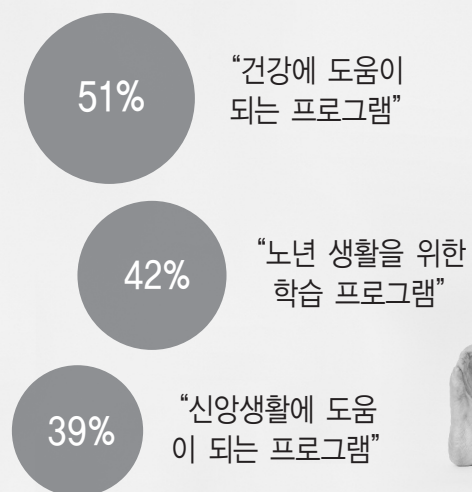
# 실버세대를 위한 바로 그 교회

노인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하다!

한국 교회가 정말 빠르게 늙고 있다. 이미 2014년 60세 이상 성도 비율이 24.4%를 기록하며 ‘초고령 교회’에 진입했다. 2021년에는 60세 이상 성도 비율이 무려 37.7%에 달했다. 고령 성도가 늘어난 만큼 실버세대를 위한 교회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버세대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사역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지면에서는 고령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교회가 실버세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고령 성도가 희망하는 프로그램



“사람은 누구나 다섯 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심리학자 매슬로우(Abraham Harold Maslow)가 한 말이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Belongingness and Love Needs)’, ‘존경의 욕구(Esteem Needs)’,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를 가지고 태어난다.

‘생리적 욕구’는 숨 쉬고, 먹고, 자고, 입는 의식주에 관한 욕구를 말한다. 본능적인 욕구로서 인간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포함된다. ‘안전의 욕구’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경제적 영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이다.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는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소속감을 느끼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싶은 욕구이다. 친구와 교제를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존경의 욕구’는 타인에게 높임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이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기 발전을 이루고,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며, 자기만족을 느끼는 욕구이다. 이 다섯 가지 욕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다.

늙어도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조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거나 좋은 옷을 선물하면 흔히 듣는 말이 있다. “다 늙었는데 이런 걸 뭐하러 먹어(입어). 나는 필요 없다”라는 말이다. 나이가 들면 정말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욕구,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늙어도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노인도 여전히 맛있는 음식

을 먹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안전한 곳에 머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하고 싶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싶다.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라오는 ‘이제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 ‘노인은 그저 돌봄의 대상’이라는 시선 때문에 그 욕구를 누르고 있을 뿐이다.

교회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 성도들의 욕구와 필요를 얼마나 잘 채워주고 있을까? 매슬로우의 다섯 가지 욕구 이론을 근거로 살펴보자.

‘생리적 욕구’는 비교적 잘 해결되고 있는 듯하다. 많은 교회와 단체에서 노인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독거노인에게 반찬을 배달해주고,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워터 사역을 통해서 노인들이 쉴 곳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고령 성도들을 풍경 좋은 곳에 모시고 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즐거운 여가를 보내도록 돕기도 한다. 교회만큼 노인 돌봄 사역을 잘하는 곳도 없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 노인 돌봄에만 멈춰있는 게 아쉽다. 교회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교회에서 노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실버세대가 진짜 원하는 것을 충분히 채워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노인이 행복한 교회 만들기

노인만큼 ‘안전의 욕구’를 절실하게 소망하는 세대가 또 있을까? 노화가 진행될수록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신체 기능과 감각기관의 퇴화가 나타나고, 수면시간과 반응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성기능과 지적 능력도 크게 감퇴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체

적 능력이 약화하고, 문제해결 능력도 떨어진 다. 역할 상실 등으로 생산성과 활동성이 위축되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누구나 이 모든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발표한 ‘고령 성도의 신앙생활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성도 30%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다. 고령 성도의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고령 성도를 대상으로 간단한 우울 정도를 측정했는데, 응답자의 12%가 우울감(심한+중간 우울)을 호소하고 있었다.

고령 성도 73%가 개인적 관심사로 ‘건강’을 뽑았다. 또 고령 성도 72%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령 성도가 희망하는 프로그램 1위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51%)이고, 그다음이 ‘노년 생활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42%), ‘신앙생활(영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39%) 등의 순이었다. 나이 들어 몸이 노쇠해지는 노인에게 건강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고령 성도들이 신체적, 심리적 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남은 생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교회가 제공해야 한다. 죽음에 가까운 시기를 맞이한 고령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죽음준비교육(연극, 가상죽음체험 등) 등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도 여전히 타인과 교류하고 싶고,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한다. 노인에게도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고령 성도의 위치가 참 애매하다. 고령 성도들은 성인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성인공동체의 막동이인 30~40대 성도들과 교류하기에는 세대 차이가 너무 크다.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

지 않아서 말수를 줄이게 되고, 공동체 생활이나 순예배 참여를 멀리하기도 한다.

실버세대를 위한 공동체가 있다면 어떨까? 노년기 변화에 함께 공감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나누며, 남은 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 말이다. 목회데이터에서 발표한 ‘고령 성도의 소그룹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 성도를 위한 소그룹에 참여하는 91%가 만족하고 있다. 고령 성도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신앙 생활하는 실버세대를 위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노년기에 ‘존경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 노년과 은퇴는 때 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노인이 은퇴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을 경험한다. 사회적 지위 상실에 따른 정체감 혼란을 겪기도 한다. 한없이 늘어난 여가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기도 한다. 심한 경우 이로 인한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

교회가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들이 은퇴 이후에도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장(場)을 마련해줘야 한다. 청년세대와 소통하고, 지금껏 쌓은 신앙과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멘토링도 좋다. 실버세대가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을 만들어도 좋겠다. 실버세대만으로 이루어진 찬양팀이나 봉사팀을 더 만들어서 사역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 실버세대가 주체적인 존재로 설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고령 성도가 크게 늘고 있다. 성도들 사이에서 고령 성도가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하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실버세대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령 성도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불어 다양한 사역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실버세대를 위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

## 맛있는 말씀 해설

##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대상 4:10)

‘야베스의 기도’가 세상적인 복이자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는 성도들이 많다.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와 성공의 복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부정적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복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부 그 자체 즉,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 복에만 매달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위험성을 여러 번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야베스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기도해야 할까?

〈역대기〉는 우상숭배의 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윗 왕조의 회복을 꿈꾸고, 이스라엘 재건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미래지향적인 역사서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가치관이 필요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역대상〉 1-9장에 이르는 톨레도트(족보)를 통해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그리

고 다윗과 솔로몬 왕을 기억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영적 구심력이 모든 이웃들에게 원심력으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소망하고 있다. 〈역대기〉 족보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서와 에돔, 이방인들을 함께 족보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맥락에서 〈역대기〉 기자가 갑자기 한 개인의 가족사를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널리 알려진 야베스의 기도이다.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익숙한 야베스의 기도는 한국 교회에서 한때 뜨거운 논란이 되었다. 브루스 월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디모데, 2001)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지나친 기복주의와 세속적 복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동작용으로 김홍만의 〈다시 쓰는 야베스의 기도〉(생명의 말씀사, 2003)라는 책이 나오고, 〈야베스의 기도, 그 후〉(디모데, 2006)가 출간되면서 야베스의 기도는 대중들에게 상당히 난해한 구절로 인식돼버리고 말았다. 브루스 월킨슨이 야

베스의 기도를 지나치게 현세적인 축복으로 해석했다면, 반대로 김홍만은 현세적 축복을 지나치게 배제하고, 영적인 축복을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 김홍만은 본의 아니게 현실의 복은 도외시하고, 영적인 축복만 좋은 거라는 입장에서 책을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적 축복을 배제시키면서 말이다. 성경이 말하는 양쪽의 입장을 배제한 채 한쪽만 바라보려 한다면 성경 속 언약의 축복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오류를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해석하면 된다.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에서 현세적 축복을 구하는 것을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거부할 필요는 없다. 특히 야베스의 기도가 드러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복을 빌어야 할 상황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유다 지파의 연약한 시므온 지파로서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선지자적인 것보다 제사장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언급하셨다(마 5:5). 여기서 이 세상의 땅은 물질적이면서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바람직하다. 〈역대기〉에 나오는 지역, 지경, 복을 얻게 해달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을 때 언약적 축복이 세상을 향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베스의 축복기도가 무조건 세상적이라고 치부할 수 없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 될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통해 온 세상으로 복이 확대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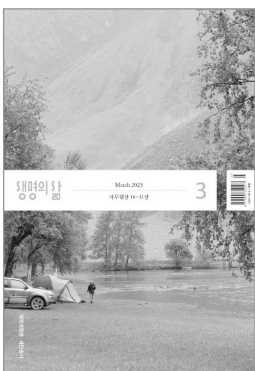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한 선택

3월 20일~26일  
사무엘상 25:14~28:14



## 묵상포인트 1: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실행력이 필요하다. 아비가일은 온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혜롭게 행한다. 그녀의 지혜로운 설득으로 다윗이 개인적인 복수심을 내려놓는다. 그러자 하

나님 편에서 다윗이 당한 수모에 대해 공의로 보복해 주신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과 공의로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자.

▶다윗을 향한 나발의 어리석은 처사로 인해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을 상황에 처한다. 나발의 하인 중 하나가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상황을 보고한다. 아비가일은 집안을 살릴 대책을 강구한다.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다윗에게 줄 양식을 준비해서 간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 부드럽고 지혜로운 말로 존경심을 표한다. 이에 다윗은 복수심을 버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한다.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자 죽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한다.

묵상포인트 2: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 대한 외적 행동으로 명확히 드러난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 주시는 분도, 원수를 갚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다윗의 중심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원수 같은 사울을 선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자.

▶사울은 다윗이 십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 그곳으로 가서 진을 친다. 사울이 안심하고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은 부하인 아비새 한 명만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간다. 아비새는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며 단번에 죽이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한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심판할 거라며 사울의 진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온다. 마음만 먹었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원수의 목숨이 자기 손에 들어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택을 한다.

묵상포인트 3: 하나님께 묻지 않은 선택은 불안함을 동반한다. 사울의 추적에서 벗어나고자 블레셋 아기스의 수하에 들어간 다윗은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형세에 처한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오자 다급한 마음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는다. 다윗과 사울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는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해야 하는지 묵상하자.

▶사울이 다윗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

지만,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적이 계속될 것을 알고 블레셋 가드로 떠난다.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를 받아들인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굴라이라는 성읍을 주고 다스리게 한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공물을 바치기 위해 주변 부족을 약탈한다. 재물을 받으며 어디를 약탈했느냐고 묻는 아기스에게 다윗은 유다 지파 지역을 약탈했다고 거짓말한다. 블레셋이 군대를 소집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 이를 두려워한 사울은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 위기 때 사울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가장스럽게 여기시고 금하시는 행위를 선택한다.

##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부드러운 권면이 불타는 복수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자. 내가 지혜롭게 설득해서 화평을 이끌어 낼 일이 무엇인가? 여전히 개인적인 복수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은 결국 다윗 앞에서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시인한다. 완악함을 녹이는 길은 인내와 용서밖에 없다. 내가 원수마저 선대한 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인내와 용서를 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고,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내 생각과 계획은 늘 불완전함을 인정하자. 늘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 가족 구원을 위해

저희 가정의 기도제목들을 나누고 싶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저희 가정의 가장 큰 기도제목은 시댁 식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남편과 저는 청년부에서 만나 5년 연애하다 결혼했고, 이제 20년 차 부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과 저의 신앙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비롯해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일이 결혼 이후 여러 갈등을 빚었습니다. 주일에 잡히는 가족 모임과 명절 제사 등 서로 의견을 좁히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어머니와 시누이가 무당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집에 부적을 두는 일이 허다하고, 그 무당의 말이라면 꺾죽습니다. 다 사술이고 거짓이라며 설득해보려 했는데, 저희 부부의 말은 귀에 들리지 않으신 듯합니다. 저희 가정이 그리스천으로서 모범이 되지 못해서 시댁 식구들이 교회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인 지 자책도 하게 됩니다. 저희 부부의 믿음이 부족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아직도 전도하지 못한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머니와 시누이가 무당집에 발길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시댁 식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온 식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오도록 기도해주시고.

/ 익명의 성도



정기후원 약정

1. 생명을 살리는 NGO 2. 선교하는 NGO

## 우리가 꿈꾸는 더멋진세상



신원석 목사  
(NGO 더멋진세상  
사무국장)

2010년 10월 10일 오전 10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당시 하용조 목사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성도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더 멋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 줍시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해 줍시다!”

NGO 더멋진세상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12년을 씬 없이 달려왔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긴급구호를 시작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큰 재난으로 삶이 무너져 고통받고, 전쟁으로 난민이 된 사람들을 찾아가 도왔다. 그곳에 남겨진 그루터기 같은 작은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조용히 그 땅을 섬겼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신 하용조 목사님의 메시지는 NGO 더멋진세상이 감당해야 할 선교명령이다. 그 때문에 NGO 더멋진세상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뿐 아니라 타 교회나 타 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들과도 동역하고, 막힌 선교의 길을 여는 데 힘쓰고 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신 하용조 목사님의 메시지는 NGO 더멋진세상이 감당해야 할 선교명령이다. 그 때문에 NGO 더멋진세상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뿐 아니라 타 교회나 타 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들과도 동역하고, 막힌 선교의 길을 여는 데 힘쓰고 있다.

### 왜 NGO단체가 선교에 관심을 두는가?

“복음은 그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교육사업, 환자 치료, 굶주린 자와 학대받고 압제 받는 자, 무력한 자를 위해 구제 사업에 참여하게 만든다.”

100년 전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말이다. 복음이 우리를 NGO 사역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NGO 더멋진세상의 열매는 복음의 열매여야 한다. 또 NGO 더멋진세상의 사업으로 많은 사람의 삶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들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기에 NGO 더멋진세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그들의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막 8:36).

NGO 더멋진세상이 보냄을 받은 땅은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곳이 많다. 그곳에서도 사랑의 섬김으로 선교의 길을 열고, 선교를 개척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1



2



3



4

코트디부아르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오디오 성경 읽기 사역(사진 1, 2)과 NGO 더멋진세상에서 건립한 기숙사에서 지내는 미얀마 그두족, 그난족 아이들(사진 3, 4).

복음의 문이 열린 곳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돕고 교회를 건축했다. 지진 피해복구를 도우려 찾았던 네팔을 비롯해 기니비사우, 온두라스, 남수단, 부르키나파소, 르완다, 멕시코, 우간다 등지에 교회를 건축하고, 주일학교를 열었다. NGO 더멋진세상 덕분에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온누리교회가 27년 전 입양한 미전도종족 스리랑카 베다족을 비롯해 3개 종족의 복음을 위해서도 애써 왔다. 그 결과 오랫동안 문이 닫혀있던 마을이 ‘더멋진마을’ 꿈꾸게 되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 식수, 교육 등과 함께 비전센터를 세웠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결국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을 변화시켰다.

메마르고 황폐한 서부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다. 전 세계에 오디오 성경 보급을 위해 애쓰는 G&M(Grace & Mercy)과 NGO 더멋진세상이 함께 2020년부터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현지 교회에 오디오 성경을 보급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공용어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전히 부족어를 사용하기에 프랑스어로 전해지는 설교와 성경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 그들에게 부족어로 성경이 들려져야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

NGO 더멋진세상은 현재까지 15개 부족에게 오디오 성경을 보급했다. 현재까지 13개 지역에 106개 교회를 개척했다. 3천 1백여 성도들의 감동적인 간증도 봇물 터지듯 터져 나

오고 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와 말씀의 부흥을 목도하고 있다. 말씀의 부흥이 온 아프리카 대륙을 덮고, NGO 더멋진세상이 사업하는 지역은 그곳이 어디든지 오디오 성경을 보급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이 만난 척박한 지역 가정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아버지들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을 꿈꾸며 2019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아버지학교를 시작했다. 교회 지도자들과 교단 목회자들,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지부 스태프 40여 명이 먼저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ECD 센터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했다.

한 사람의 전인적인 변화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킨다. 가난을 극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의 회복임을 깨달은 목회자들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지부에서는 현지 장로교단과 협력해서 일대일제자양육 교재를 현지어로 보급하고 있다.

### 복음은 NGO를 통해 어떻게 열매 맺는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역지를 떠나지도 않고, 코로나19로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소수 민족에게 구호품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던 정비울 선교사님이 코로나19로 2021년 7월 25일 밤 10시 소천하셨다.

정비울 선교사님은 미얀마 미전도종족인

그두족과 그난족의 고아들을 섬기셨다. 그두족과 그난족 아이들이 먼 길을 통학하다가 납치와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NGO 더멋진세상에 도움을 요청하셨다. NGO 더멋진세상에서는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숙사를 건립해줬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이 선교사와 현지 사감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모든 아이가 세례를 받았고, 성령이 그 아이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아이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이웃 종교 신자인 자신들의 가족과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 당황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지만, 아이들은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더 멋진 세상’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NGO 더멋진세상은 식수, 보건, 교육, 농업, 소득증대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마을의 변화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변화는 그들의 영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복음의 대로, 주님의 대로를 열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

“만일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부유하고, 대학 교육을 받으며, 모두 직장을 가지게 되고, 모든 불의와 전쟁이 그치고, 완벽한 건강을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로 있다면 인류는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 Chat GPT와 선교

## 기술을 복음과 선교에 유리하게 활용할 필요성



전영수 장로  
(2000선교본부,  
세계인터넷선교협의회  
이사장)

Chat GPT가 요즘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Chat GPT란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말한다. 사용자와 주고받는 대화에서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된 언어모델이다. 조금 더 쉽게 풀

이하면 Chat GPT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은 질문에 사람이 대답하는 것 같은 답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나안 정탐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나이 많은 사람의 이름은?”이라는 질문을 하면 Chat GPT가 다음과 같은 답을 준다.

“카레브(Caleb)입니다. 카레브는 유다 지파의 족장 중 한 사람으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 정찰을 수행한 후...(이하 생략)”

“나도 갈렙과 같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시를 써 줘”라는 조금 더 창의적인 질문을 하면 Chat GPT는 이런 답을 준다.

“용기 있는 삶의 꿈 / 나도 갈렙과 같은 용기를 가지고 / 난 살아가고 싶어 / 이 세상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갖고 / 난 걸어가고 싶어 / (이하 생략)”

### 선교적 질문과 Chat GPT의 답

SWIM(세계인터넷선교협의회)에서 Chat GPT에 몇 가지 선교 관련 질문을 입력하고 그가 답하는 것을 요약했다.

질문1: “성경은 변질 되었나요?”

Chat GPT의 답: “성경은 번역 과정에서 원문과 다른 번역 문장이 추가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성경 자체가 변질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2: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사실인가요?”

Chat GPT의 답: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의 통치자인 폰티우스 피라투스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다수의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역사학자 타실리우스의 서사시(Narrative)에 그 기록이 있고, 신약성서 등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질문3: “착하게 살면 되지 왜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Chat GPT의 답: “대표적인 이유는 아마도 인간의 본성적인 한계와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봐 주며,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문



“  
기술은 선교가 기피할 대상이 아니다.  
기술을 선교에 이롭게 활용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하다.  
복음 전도의 열정과 함께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선교의 돌파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제를 대신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기독교에 대한 질문 20여 가지 항목을 Chat GPT에 질문했더니 그 답은 비교적 중립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Chat GPT의 한계와 선교적 가능성

한글 데이터에 기반을 둔 몇 가지 질문을 해 봤는데, Chat GPT의 답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나 주기철 목사, 온누리교회 등에 관한 질문을 해 봤는데 대부분 틀린 내용이거나 형편없이 왜곡된 내용이었다. 그 이유는 Chat GPT가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내용 대부분 영문 데이터(92%)이고, 한글 데이터는 0.1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Chat GPT가 학습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는 엉뚱한 답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hat GPT는 선교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립성 제공이다. 만일 불신자나 구도자가 Chat GPT에 기독교 관련 질문을 하면 대체로 중립적인 답을 준다. 예를 들어 성경은 변질 되었다고 배워 온 현지인에게 선교사나 현지 사역자가 아무리 복음에 관해 말하려 해도 그들은 성경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귀를 닫거나 감정적인 토론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Chat GPT가 중립적인 답을 주면 그것으로 이 문제가 일단락되거나 추가적인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선교사는 그 장벽을 넘어 그 다음 전도 과정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활발한 질문을 기대한다. 그동안 일부 선교지역에서는 종교에 대한 질문 자체를 금기시켜 왔다. 그로 인해 그 지역 주민들은 종교적 질문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Chat GPT는 과학이든, 종교든, 생활이든 어떤 영역의 질문도 모두 답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질문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자유롭게 하게 함으로써 닫혔던 그들의 눈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누구나 질문할 수 있다. 많은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가정당 혹은 개인당 한 대씩은 가지고 있다. Chat GPT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입 절차도 상당히 쉽다. 무료사용도 가능하다. 그들에게 선교사나 사역자가 Chat GPT를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고 질문만 하게 하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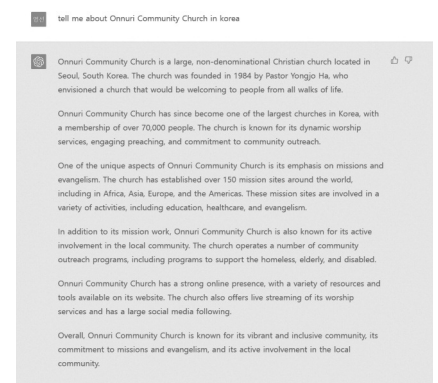
넷째, 다양한 언어지원이 된다. 예를 들어 선교지에서 일본어로 기독교에 관한 질문을

하면 Chat GPT는 주로 영어 데이터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중립적이고, 비교적 정확한 답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알려준다. 다양한 언어지원이 되는 Chat GPT를 일본 선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언어지원은 선교사가 나가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선교 홈페이지나 앱 등과 Chat GPT 관련 질문 창을 연결할 수 있다. 사이트에 미리 복음 관련 질문 목록을 다수 준비해 놓고, 질문자가 들어와서 어떤 질문을 선택하면 그 답을 Chat GPT에서 가져와 보여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중립성을 강화한 기독교 관련 Q&A 도서관(Library)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Chat GPT는 이제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분야에서는 Chat GPT가 사람의 직업을 대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선교에 유리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술은 선교가 기피할 대상이 아니다. 기술을 선교에 이롭게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선교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의 열정과 함께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선교의 돌파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Chat GPT에 온누리교회에 대해 질문하자 답변한 내용.

\*Chat GPT(Generative Per-trained Transformer)란 OpenAI가 개발한 프로토타입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Chatterbot)이다.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람과 사람이 채팅하듯이 대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전의 대화까지 기억하고 있어서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요구나 지적사항도 받아들이는 게 이전까지의 챗봇과 차별화된 점이다. Chat GPT가 google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계에서도 설교문을 작성해 보는 등 Chat GPT를 활용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 라떼는 말이야

##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나 확신이 없습니다. 저에게 용기나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멘토님,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연약한지라 항상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기 쉽다.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중압감에 시달리곤 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어둠의 영이 만드는 것이다. 일을 망치게 하고, 자존감을 심하게 떨어뜨리며, 나아가 깊은 좌절을 준다. 출애굽 이후 망망대해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과 두려움, 막강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괴물 거인 골리앗을 만난 이스라엘 군대의 좌절과 절망, 공포가 그것이다. 이럴 때 세상 사람은 대부분 눈앞의 장애물(홍해, 골리앗)만 바라본다.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의 처지와 경험, 자신의 셈법으로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결정한다.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모든 게 끝

이야. 나는 왜 이리 못났고, 내 일은 왜 안 풀릴까?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아, 바보’라며 좌절한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내가 마주하는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의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나도 삶의 무게와 두려움에 크게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다. 대학 입시에서 원하던 학교에 합격하지 못했다. 크게 낙담하고 재수를 시작했다. 그 무렵 설상가상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내가 대학에 합격한다 해도 학비를 도저히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막막했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도, 자신감도, 의욕도, 조그만 기대도 없었다. 사방이 어둡고 힘들고 두려웠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열심이었다. 나를 결코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 재수하던 그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고 보여주시며 나를 인도하셨다. 이듬해 나는 좋은 대학교

에 차석입학했다. 4년 전액 장학생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대학 합격자 발표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랐던 그 감격과 은혜를 지금도 결코 잊을 수 없다. 내가 그때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스스로 비하하고, 자존감을 잃어가며 내 방식대로 일을 풀어 갔다면 오늘의 나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뒤에는 무서운 이집트 마차와 군사들, 앞에는 거대한 홍해를 마주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거라 하면 된다”(출 14:13-14).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연약해서 앞날의 불안과 의심, 두려움에 빠질 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이다.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동행하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이다. 일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겠다고 기도하라. 일을 이루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을 기억하라.

셋째, 두려움의 영이 찾아오면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말씀은 선포의 능력과 운동력이 있다. 말씀을 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신재영 멘토  
(요셉청년부)

##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 한 발 물러서서 대화하기

격하게 말다툼하는 부부가 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심한 말들만 계속 반복한다. 누구도 배우자의 입장에서 들어줄 생각이 없다. 한 치도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서로 자기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데 여념 없다. 부부가 아니라 원한이 쌓인 원수지간의 설전으로 봐도 부족할 것 같지 않은 심각한 논쟁을 한다. 부부의 말싸움 내용은 이렇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게 몹시 섭섭하다는 것이다. 남편은 자기 생각이 맞았는데 아내가 수긍하지 않아서 미칠 것 같이 화가 난다는 것이다.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쏟아 놓는다.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내가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쏟아 놓으면 듣고 있던 남편이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친다. 아니, 독한 말로 아내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했던 게 맞잖아! 왜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와서 그래”라는 식의 공격이다. 아내는 남편과 있었던 사건 가운데 상했던 마음을 계속 토해내고 있고, 남편은 계속 자신의 결정이 옳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부는 지금 ‘감정’과 ‘옳고 그름’의 가치가 충돌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다. 아내는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호소하고 있다. 남편은 계속 자신이 옳았었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 자신이 옳았는데 따라주지 않았던 배우자와 가족들 때문에 힘들고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남편에게는 감정이 우선 다뤄야 할 주제가 아니

다. 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었다는 것에 대한 인정과 수긍이다.

인간은 자신의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이 먼저 공급되어야 한다. 물보다 빵을 주는 것은 적절한 배려가 아니다. 배가 심하게 고프는 사람에게 물이 먼저 빵을 주는 게 필요하다. 쉴 곳은 그다음에 제공해주는 것이 적절한 돌봄이다.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부부관계나 가족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결정이 옳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해주는 것이다. 자신의 결정 혹은 조연대로 배우자나 가족이 따르지 않아서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한 안타까움이 남편에게 남아 있다. 그런데 지금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줄 상황이 안 된다. 지금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한 감정을 알아주고 어루만져주는 것이기 우선이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은 무너져 내린 감정을 토닥여 주는 배우자의 따뜻한 마음과 공감이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가 더 많은 잘못을 했는지를 가리는 것은 감정이 충분히 회복된 이후 일이다. 당장 아내는 감정적인 목마름이 더 큰 고통이고, 배고픔은 그다음이라 할 수 있다. 과정이 어떠한든 가족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조연대로 수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좋지 못했다. 그러나 아내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의 동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몹시 힘든 상태에 처했다. 그래서 아내가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 “왜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줘”라고 속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다. 먼저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주면 그 다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데, 서로 심각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화의 진전도, 화해의 가능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아내의 마음을 보듬어 주면 남편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단계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출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의 어려움을 들어줄 여유 공간이 전혀 없다. 남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옳았었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먼저 수용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다면 그다음 대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그 시점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부부가 감정이 격해져서 심각하게 말다툼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기고 지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로 들어가버린다. 다른 길이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뇌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다.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부의 상황을 보면 “중요하지도 않을 걸 가지고 왜들 저러지?”, “아니 조금씩 양보하면 되잖아”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원인은 간단하다. 자신이 직면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부부 갈등의 이슈가 자신의 이슈가 된다면 판단력이 몹시 흐려지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기 쉽다. 말싸움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더 유치해지며, 때로 더 잔인해지게 된다. 자신이 당사자가 되면 좌우를 살피지 않고 고통의 창으로 상대방의 심장을 주저 없이 찌르기까지 한다.

사실 이 부부가 충돌한 주제는 무난하게 평화를 획득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이슈다. 이

슈가 아니라 대화 과정이 문제다.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한 발 물러서서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아내는 잘못된 결정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될 것이다. 아내도 남편의 결정이 옳았었다고 먼저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을 한 발 물러서서 했더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자신의 뒤틀린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어렵다.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잠시 잡아 놓는 게 어렵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잠시 잡아 놓는 게 어렵다. 그럼에도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들끓어 오르는 마음 위에 배우자의 마음과 생각을 우선 답아주는 게 필요하다.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배우자의 마음이 어떻게 들어주는 과정이 있을 때 부부는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나아가 용서가 무엇인지, 용납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다.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 전에 배우자의 가장 급한 감정이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청하고자 하는 노력과 헌신

이 필요하다. 이 수고와 인내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시편 147편).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2023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돌봄: 다음세대를 돌보는 신앙교사'.

## ‘돌봄: 다음세대를 돌보는 신앙교사’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교사 및 학부모 1천6백 명 참석

2023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돌봄: 다음세대를 돌보는 신앙교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는 3월 8일(수)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과 3월 15일(수)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차세대 교사와 부모,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1천6백 명(양재 830명, 서빙고 770명)이 참석했다.

지난 3월 15일(수)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는 파워스테이션(차세대 찬양팀)의 찬양, 김도영 장로 기도, 이재

훈 담임목사 설교, 합심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차세대를 위해 올라’ (눅 23:27~31)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과 자녀를 위하여 올라고 명하셨다”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고, 어두워져 가는 시대에서 차세대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울며 기도하라”고 당부했다.

백애신 교사(서빙고 꿈땅)는 “아이들을 섬기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으

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내 안에 말씀을 채워서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임명숙 성도(서대문공동체)는 “다음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면서 “다음세대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계속 기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홍혜영 기자 hha0@onnuri.org

## 와이무슬림 참가자 모집

3월 25일부터 매주 토 오후 5시 도곡 온유홀

와이무슬림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도곡교육관 온유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4월 1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와이무슬림은 이슬람 역사와 문화 등을 배우며 이슬람을 이해하고,

이슬람권에 대한 선교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이슬람 역사, 문화와 신앙체계의 발전 과정’,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 ‘이슬람의 예수 이해’, ‘한국의 이슬람’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5557-8924

## 52기 행복반(남성) 모집

4월 3일~6월 26일 매주 월 오후 8시 온라인(Zoom)

52기 행복반(남성)이 4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행복반은 아픈 과거를 소그룹 안에서 고백하고, 서로 지지해줌으로써 과거와 화해하고 자존감을 세우는 회복프로그램이다. 52기 행복반은 남성만 신청할 수 있다. 교재는〈뒤늦게 찾아온 행복〉(두란노, 성주명 저)이다.

성주명 장로와 성아나 권사가 ‘인격 장애와 충동적 행위 형성’,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해방’, ‘

상처에서 회복된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QT 강해 및 실습’ 등을 주제로 인도한다. 용서와 회개로 막힌 답을 열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성장을 하고 싶은 남자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성주명 장로는 “행복반 과정에 참가한 모든 남성이 가정, 직장, 사역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문의: 010-6761-4350

##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2023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이스라엘편’이 1차 6월 2일(금)부터 8일(목)까지, 2차 7월 21일(금)부터 27일(목)까지, 3차 9월 22일(금)부터 28일(목)까지 진행된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스페인편’은 11월 2일(목)부터 11일(토)까지 진행된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교회사와 세계사를 공부하고 현장을 답사한다.

문의: 010-4902-1022

##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세미나가 4월 4일과 1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김찬숙 목사(선한목자교회)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기도’, ‘기도와 영적전쟁’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4만 원이다. 3월 28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71

## ‘온누리 가스펠프로젝트(OGP)’ 개강

4월 3일 구약 2권, 4월 10일 구약 3권, 온라인

2023년 1학기 온누리 가스펠프로젝트(Onnuri Gospel Project; 이하 OGP)가 개강한다. ‘구약 2권(하나님의 구출계획)’ 4월 3일(월), ‘구약 3권(약속의 땅)’ 과정이 4월 10일(월)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OGP는 성경 통합교재 〈가스펠프로젝트〉를 온누리교회에 맞춰 준비한 새로운 양육 프로그램이다. 나눔 중심의 소그룹 성경 공부다. 소속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인도자 포함 5명 내외의 소수 인원이 성경 각 단원의 핵심 내용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연대기 흐름을 이해하고,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를 알아가



는 과정이다. 총 12권(구약 6권, 신약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OGP 참가신청은 각 공동체 양육담당 총무에게 하면 된다. 개강일 이후 소그룹별로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온라인(비대면)으로 나눔을 한다. 문의: 010-2822-3280

## 청춘클래스 참가자 모집

4월 22일, 29일 오후 1시 서빙고 두란노홀

대학청년부 연애·결혼 세미나 ‘청춘클래스’ 4기가 시작된다. 4월 22일(토)과 29일(토)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크리스천 미혼 싱글 청년들이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3월 21일(화)까지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 (cafe.naver.com/youthclass)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회비는 8만 원(식식 제공).

청춘클래스 4기에서는 최성민 목사(대학청년본부장) ‘크리스천 연애노하우’, 이정선 사모(이재훈 담임목사 사모) ‘어떤 사람이 좋은 배우자인가?’, 개그맨 오지현, 박상미 부부 ‘크리스천의 행복한 이성교제’를 주제로 강의한다. 찬양 사역자 김복유의 간증 및 콘서트도 이어진다. 문의: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

## 네일아트 실기자격증 교육생 모집

북한이탈주민 대상, 3월 23일까지

온누리교회 한누리통합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네일아트 실기자격증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인원 모집 완료일로부터 16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누리통합팀 본부(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6층)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네이버폼(<https://naver.me/FiEkEitb>)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소정의 재료비 별도). 자립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한누리통합팀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한누리네일’ 및 이메일(chek1225@naver.com)에서 하면 된다.

##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수강생 모집

4월 8일부터 매주 토 양지 비전빌리지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 129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양지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1~2주 차 토요일 당일, 3~4주 차 토·일 1박 2일로 교육이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4월 5일까지 아이스쿨 또는 전화(010-9049-3375)로 하면 된다. 선착순 24가정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가정당 30만 원(자녀동반 하면 1인당 5만 원 추가).

하가훈은 성경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와 가정과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피플퍼즐’, ‘가계도(원가정의 이해)’, ‘부부치유&연합’, ‘깊은 대화(부부의 성)’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 ■ 와이무슬림 수료 간증



/ 이창숙 집사(분당A공동체)

## 천국은 우리 모두의 것!

나는 결혼 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섬기는 사람 대부분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온 결혼 이민자들이다. 딱 한 가정만 우즈베키스탄 출신 결혼 이민자다. 그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매우 친밀해졌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크리스천으로서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 정도로 그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가정에 틈나는 대로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굉장히 호의적이고 순응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가정의 자녀에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제안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신이 무슬림임을 강조했고, 자녀 또한 무슬림의 행동을 시작했다. 친밀했던 사이에 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와이무슬림 과정이 눈에 들어왔다.

6주 동안 강의와 조별 나눔을 하면서 무슬림을 이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무슬림을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5주 차 안산M센터 투어에서

신선하고 열정적인 세계를 체험했다. 2명의 무슬림과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2천 명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듯한 열정적인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는 감탄과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인도네시아 청년들에게 커피 관련 창업교육하는 모임에도 방문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곳이었다. 아름다운 미소와 열정,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복음과 무슬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에서 이제는 찾아오는 선교의 시간이다. 나에게 다가온 무슬림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며,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뿐 아니라 무슬림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이루셨다. 천국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와이무슬림 모집  
일시: 3월 25일~4월 29일 매주 토 오후 5시  
장소: 도곡교육관  
문의: 010-5557-8924

## ■ 두란노어머니학교 수료 소감



/ 김선옥 선교사(아이티공화국)

“우리 이제 이만큼 왔으니  
또 저만큼 같이 가봅시다”

유난히도 덥던 어느 여름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지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처음 만난 당신이 그저 선해 보여 한 발 두 발 다가가다 보니 어느덧 나의 사람이 되어 이렇게 늘 옆에 있네요.

하나님께서 “네 남편이다”라고 주신 당신은 나를 참 많이 힘들게 했지만, 나만큼이나 당신도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를 껴안리고, 공격하고, 지지 않으려 하고, 험한 말을 하고, 더 자극적인 말로 상처 주며 많이도 싸웠지요. 조금씩 철이 들고 인생을 알아가며 스스로 내려놓으려 애쓰지만 다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천성이 서로를 많이 힘들게 했지요.

머리에는 어느새 눈이 내리고, 얼굴 주름은 군데군데 구겨진 신문 조각 같아 볼품없고, 피부는 건조해서 메달라 보이지만, 서로 함께 늙어가니 이 또한 행복인가 보요. 우리 이제 이만큼 왔으니 또 저만큼 같이 가봅시다. 등 굽을 힘도 없이 힘겨울 때 입이라도 살아서 내가 당신 부르면 늘 근간에 계셔 주구려. 기나긴 겨울밤 유난히 가려울 때 등 긁어줄 이가 부부밖에 누가 더 있겠소.

살아보니 인생 쉬이 갑니다. 살아온 날의 길이가 한 뼘이면 살 날의 길이는 손가락 한 마디일까 싶소. 나이 들어 더 늙더라도 아직 정신 있어 서로 알아볼 때 다정한 눈빛으로 한번 더 바라봅시다. 마주 보고 “사랑한다” 말하며 한쪽 눈 찡긍해봅시다.

이제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조금씩 늙어 갑시다. 가다가 곤하면 쉬어가며 우리의 살아온 길 더듬어 가끔 뒤돌아봅시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별할 때가 오면 당신 때문에 잘 살았다고, 행복했다고 서로 손잡고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살아 가다 주님이 부르면 배를 버려두고 주님 따라간 제자들처럼 우리 그냥 따라갑시다.

돌아보니 닳은 것도 많았고, 마음이 맞을 때도 많았네요. 내게 안성맞춤인 당신을 입고 껌딱지처럼 붙어살아온 세월이 눈물겹도록 아름답기도 하네요. 이만큼 살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당신 그만큼 하면 됐다고 싶어요. 더 바라는 건 사치이지 싶고, 욕심이지 싶어요. 나의 남편으로 살아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 줄 거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수료 간증



/ 이우림 성도(가정사역공동체)

## 내가 먼저 바뀌는 시간

엄마가 아시는 권사님께 남편을 소개받았다. 우리는 연애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상견례를 하고, 4개월 뒤에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 6개월 차에는 젊은부부학교를 수료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서 끝이 뚝뚝 흘렀고, 강의를 들으면서도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상대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로 서로를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다.

결혼 4년 차,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인데 양육하면서 잦은 다툼이 일어났다. 인성을 높이고 싸우는 우리 둘 사이에서 눈치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개강 소식을 들었다. 엄마의 강력한 권유와 “이 학교를 끝으로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라는 남편의 반강제적인 협박을 들으며 127기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를 시작했다.

첫 시간,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찬양 가사를 들으며 눈물로 회개했다. 찬양 가사 안에 삶의 목

적과 의미, 우리 부부가 바라봐야 할 목표가 들어있었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는 상대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왔다. 나가 갈 때는 내가 더 많이 바뀌어서 나가 는 학교”라던 총무님의 말씀도 생생했다. 남편이 바뀌기를 바라던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총무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더 많이 변하는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서의 3주가 정말 빨리 흘렀다.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내가 바뀌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실천이 쉽지 않았다. 갑자기 어려워진 직장 문제를 핑계로 남편과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했다. 스스로 더욱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나의 나약한 모습이 더욱 드러났다. 그럼에도 나를 다시 한번 참고 기다려준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내가 먼저 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귀한 시간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고, 베푸는 삶을 사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기도한다.

## ■ 갈렙선교학교 수료 간증



/ 김정연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 “내가 갈렙입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평온하게 자랐다. 큰 고비도 삶의 어려움도 없이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용조 목사님의 “배우거나 혹은 가르쳐야 한다”는 메시지와 “예수님 사랑에 감격해서 뜨거운 가슴이 감당되지 않아 뛰쳐나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었다”는 간증을 듣고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다. 온누리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선교사로 사는 삶을 조금씩 준비했다. 선배들이 선교사로 파송 받는 길을 축복하고, 중보기도로 응원하며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나에게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동생이 암 말기 진단을 받고 쓰러졌고, 어머니는 급성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한 번에 세 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간병인이 되었다. 가족 병간호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이 희미해졌다. 나는 선교를 비행기를 타고 미지의 땅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했기에 아픈 가족들을 두고 선교하러 갈 수 없

다고 생각했다. 나의 좁은 시야를 갈렙선교학교가 넓혀주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 내가 사는 이 땅에서 함께 사는 이주민의 언어를 배우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주민들을 위한 재능기부를 하거나 선교사님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도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큰 감동은 “내가 갈렙입니다!”라는 고백이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다. 내 나이는 갈렙보다 한참 어리다. 한창 선교 열정을 불태울 나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왔다.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선교적인 삶을 계획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제는 기도 외에도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안다.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을 시도해보려 한다. 내가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곳에서 선교적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고 싶다.

많은 이들이 갈렙선교학교에 참가해서 선교적인 삶을 배우고 가르치는 갈렙이 되기를 기도한다.

권사칼럼

건강한 떠남이 건강한 만남을 만든다!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제 아내는 늘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돌아버리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데 당신은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왜 나랑 결혼했어? 아버지랑 그냥 살지’라고 말하면 바로 친정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아버지 나 그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럼 장인한테서 또 전화가 오고요. 제 아내는 도대체 누구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남편의 하소연이다. 이 남편의 아내는 자상하고 이해심 많았던 멋진 아버지를 늘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힘들게 한 것이다. 이 사연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떠남’이다.

기독교는 실로 떠남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또 암마 치마폭에 있던 아굽을 장차 이스라엘로 만드시려고 형 에서를 피해 부모 곁을 떠나게 하셨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요셉을 장차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기 위해 아버지의 꿈을 떠나게 하셨다.

결혼도 부모를 떠남으로 시작된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말씀하셨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보통 떠남에 대해 이야기하면 젊은 아내들이 가장 좋아한다.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며 “그것 봐. 모시지 말라는 이야기야. 오빠 명심해. 오빠 들으라는 이야기니까”라고 말한다. 물론 지리적인 떠남

의 의미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떠남보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떠남, 그리고 문화적인 떠남이다.

아내들은 남편이 남편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자아상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때 왜곡된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남편의 낮은 자아가 엉뚱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 상처로 인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친정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남편과 비교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옛말에 “신혼 첫날밤 잠자리에는 여섯 명이 누워 있다”고 했다. 신랑의 부모님, 신부의 부모님, 그리고 신랑과 신부 이렇게 여섯 명이 한 이불을 덮는 것이다. 연애할 때는 두 사람만의 문제지만, 결혼은 두 사람의 가정, 두 사람의 가문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다. 따라서 결혼은 가정에서 내려오는 잘못된 상처, 잘못된 문화로부터 떠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다. 서로 보완하며 돕는 가운데 함께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존재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돕는 배필이 되기보다 바라는 배필이 되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하고, 상대방을 고치고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부모로부터 떠나야 한다. 떠난다는 것은 홀로서기 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하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잘못된 상처와 문화에서 벗어나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다.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남편도 성숙하고 성장하면 자신의 아버지보다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건강한 떠남이 건강한 만남을 만든다.

사역칼럼

예술로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아트비전’



선우미숙 권사  
(아트비전 팀장)

아트비전은 사회 선교부에 소속된 미술사역선교팀이다. 세상 속에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미술가요, 조각가요, 예술가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 작품이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예술이라는 달란트를 받은 아트비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닮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크리스천 예술인으로서 예술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 희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믿는다.

미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 마음이 우리를 예술가로 만든다. 마음은 상황에 따라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창작하고 작품을 만드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든다면 사람들도 그 작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창작활동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아트비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와 나눔을 하고 있다. 팀원들과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도 한다. 우리는 아트비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되찾는다.

나도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문화와의 괴리감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다. 심적,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한동안 붓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아트비전을 만났다. 아트비전에서 활동

하면서 크리스천 미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제는 어둠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 아트비전에서 회복된 것은 나뿐만이 아니다. 나처럼 잠시 붓을 내려놓고 방황했던 많은 미술인이 아트비전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다시 시작했고, 회복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트비전은 온누리교회 밖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각 교회 크리스천 예술인들이 모여 ‘기독교미술선교회’를 만들었고,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KCAF)’라는 단체도 만들었다. 아트비전도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와 함께 동역해온 기간이 벌써 11년이 되어간다.

크리스천 예술인들은 말씀과 신앙,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표현하고자 늘 고민하고 묵상한다. 크리스천 예술인들이 그림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뜻있는 미술인들이 아트비전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으로 공동체 소속되어 있고, 미술 전공자이거나 작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성도가 대상이다. 봉사 활동이 가능한 미술인이면 누구나 아트비전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다. 예술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트비전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는 작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아트비전은 미술 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전시된 작품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작품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고, 연약한 심령 가운데 회복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앞으로도 아트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 희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한 일에 더 많은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문의: 사회선교부 02-3215-3434

신앙에세이



김태광 전도사  
(SNS청년부)

요즘 손경민 목사님의 ‘충만’이라는 찬양을 즐겨 듣고 있다. 손경민 목사님은 ‘은혜’, ‘행복’ 등 유명한 찬양들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다. 모두 너무 좋은 찬양인데 특히 ‘충만’이라는 찬양을 성도들께 소개하고 싶다.

이 찬양은 한국인의 감성을 울릴 수 있는 멜로디도 좋지만, 더 큰 감동을 주는 게 있다. 바로 가사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나에게 “나는 정말 예수로 충만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와 함께 있어서 만족하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더욱 예수로 충만하게 살기를 소망한다.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거나 무조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지는 않는다. 예수를 믿어도 유명하지 않을 수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예수가 주시는 축복은 세상의 가치들이 아니다. 모든 순간에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공허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시 56:11).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고백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예수로 충만한 삶

받았기에 편한 길, 높은 자리로 가야 하는 게 정상일 것 같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래도 다윗이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이 찬양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성경 속 인물이 또 있다. 바로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이 아파도 계속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고, 감옥에 있어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 가는 길이면 편안한 길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온 만물의 왕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고난 길을 가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고 회를 위한 서신을 쓰면서 자신이 옥에 갇혀있어도 복음을 위해 갇힌 것이기 때문에 기쁘다

고 말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

손양원 목사님도 그런 삶을 살았다. 두 아들을 잃으면 보통의 부모라면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게 정상이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입양해 양아들로 삼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오직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뿐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이 찬양 가사처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고, 부요하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하였다. 이 세상이 무엇을 말해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두렵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한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고 싶다.

|                                                                                                                                                                                                                                                                                                                                                                                                                                                                                                                                                                                                                                                                                                                                                                                                                                                                                                                                                                                                                                                                                                                                                                                                                                                                                                                                                                                                                                                                                                                                                                                                                                                                                                                                                                                                                                                                                                                                                                                                                                                                                                                                                                                                                                                                                                                                                                                                                                                                                                                                                                                                                                                                                                                                                                                                                                                                                                                                                                                                                                                                                                                                                                                                                                                                                                                                                                                                                                                                                                                                                                                                                                                                                                                                                                                                                                                                                                                                                                                                                                                                                                                                                                                                                                                                                                                                                                                                                                                                                                                                                                                                                                                                                                                                                                                                                                                                                                                                                                                                                                                                                                                                                                                                                                                                                                                                                                                                                                                                                                                                                                                                                                                                                                                                                                                                                                                                                                                                                                                                                                                                                                                                                                                                                                                                                                                                                                                                                                                                                                                                                                                                                                                                                                                                                                                                                                                                                                                                                                                                                                                                                                                                                                                                                                                                                                                                                                                                                                                                                                                                                                                                                                                                                                                                                      |                                                                                                                                                                                                                                                                                                                                                                                                                                                                                                                                                                                                                                                                                                                                                                                                                                                                                                                                                                                                                                                                                                                                                                                                                                                                                                                                                                                                                                                                                                                                                                                                                                                                                                                                                                                                                                                                                          |                                                                                                                                                                                                                                                                                                                                                                                                                                                                                                                                                                                                                                                                                                                                                                                                                                                                                                                                                                                                                                                                                                                                                                                                                                                                                                                                                                                                                                                                                   |                                                                                                                                                                                                                                                                                                                                                                                                                                                                                                                                                                                                                                                                                                                                                                                                                                                                                                                                                                                                                                                                                                                                                                                                                                                                                                                                                                                                                                                                                                                                                                                                                                                                                                                                                                                                                                                                                                                                                                                                                                                                                                                                                                                                                                                                                                                                                                                                                                                                                                                                                                                                                                                                                                                                                                                                                                                                                                                                                                                   |                                                                                                                                                                                                                                                                                                                                                                                                                                                                                                                                                                                                                                                                                                                                                                                                                                                                                                                                                                                                                                                                                                                                                                                                                                                                                                                                                                                                                                                                                     |
|------------------------------------------------------------------------------------------------------------------------------------------------------------------------------------------------------------------------------------------------------------------------------------------------------------------------------------------------------------------------------------------------------------------------------------------------------------------------------------------------------------------------------------------------------------------------------------------------------------------------------------------------------------------------------------------------------------------------------------------------------------------------------------------------------------------------------------------------------------------------------------------------------------------------------------------------------------------------------------------------------------------------------------------------------------------------------------------------------------------------------------------------------------------------------------------------------------------------------------------------------------------------------------------------------------------------------------------------------------------------------------------------------------------------------------------------------------------------------------------------------------------------------------------------------------------------------------------------------------------------------------------------------------------------------------------------------------------------------------------------------------------------------------------------------------------------------------------------------------------------------------------------------------------------------------------------------------------------------------------------------------------------------------------------------------------------------------------------------------------------------------------------------------------------------------------------------------------------------------------------------------------------------------------------------------------------------------------------------------------------------------------------------------------------------------------------------------------------------------------------------------------------------------------------------------------------------------------------------------------------------------------------------------------------------------------------------------------------------------------------------------------------------------------------------------------------------------------------------------------------------------------------------------------------------------------------------------------------------------------------------------------------------------------------------------------------------------------------------------------------------------------------------------------------------------------------------------------------------------------------------------------------------------------------------------------------------------------------------------------------------------------------------------------------------------------------------------------------------------------------------------------------------------------------------------------------------------------------------------------------------------------------------------------------------------------------------------------------------------------------------------------------------------------------------------------------------------------------------------------------------------------------------------------------------------------------------------------------------------------------------------------------------------------------------------------------------------------------------------------------------------------------------------------------------------------------------------------------------------------------------------------------------------------------------------------------------------------------------------------------------------------------------------------------------------------------------------------------------------------------------------------------------------------------------------------------------------------------------------------------------------------------------------------------------------------------------------------------------------------------------------------------------------------------------------------------------------------------------------------------------------------------------------------------------------------------------------------------------------------------------------------------------------------------------------------------------------------------------------------------------------------------------------------------------------------------------------------------------------------------------------------------------------------------------------------------------------------------------------------------------------------------------------------------------------------------------------------------------------------------------------------------------------------------------------------------------------------------------------------------------------------------------------------------------------------------------------------------------------------------------------------------------------------------------------------------------------------------------------------------------------------------------------------------------------------------------------------------------------------------------------------------------------------------------------------------------------------------------------------------------------------------------------------------------------------------------------------------------------------------------------------------------------------------------------------------------------------------------------------------------------------------------------------------------------------------------------------------------------------------------------------------------------------------------------------------------------------------------------------------------------------------------------------------------------------------------------------------------------------------------------------------------------------------------------------------------------------------------------------------------------------------------------------------------------------------------------------------------------------------------------------------------------------------------------------------------------------------------------------------------------------------------------------------------------------------------------------------------------------------------------------------------------------------------------------------------------------------------------------------------------------------------------------------------------------------------------------------------------------------------------------------------------------------------------------------------------------------------------------------------------------------------------------------------------------------------------------------------------------------------|------------------------------------------------------------------------------------------------------------------------------------------------------------------------------------------------------------------------------------------------------------------------------------------------------------------------------------------------------------------------------------------------------------------------------------------------------------------------------------------------------------------------------------------------------------------------------------------------------------------------------------------------------------------------------------------------------------------------------------------------------------------------------------------------------------------------------------------------------------------------------------------------------------------------------------------------------------------------------------------------------------------------------------------------------------------------------------------------------------------------------------------------------------------------------------------------------------------------------------------------------------------------------------------------------------------------------------------------------------------------------------------------------------------------------------------------------------------------------------------------------------------------------------------------------------------------------------------------------------------------------------------------------------------------------------------------------------------------------------------------------------------------------------------------------------------------------------------------------------------------------------------|-----------------------------------------------------------------------------------------------------------------------------------------------------------------------------------------------------------------------------------------------------------------------------------------------------------------------------------------------------------------------------------------------------------------------------------------------------------------------------------------------------------------------------------------------------------------------------------------------------------------------------------------------------------------------------------------------------------------------------------------------------------------------------------------------------------------------------------------------------------------------------------------------------------------------------------------------------------------------------------------------------------------------------------------------------------------------------------------------------------------------------------------------------------------------------------------------------------------------------------------------------------------------------------------------------------------------------------------------------------------------------------------------------------------------------------------------------------------------------------|-----------------------------------------------------------------------------------------------------------------------------------------------------------------------------------------------------------------------------------------------------------------------------------------------------------------------------------------------------------------------------------------------------------------------------------------------------------------------------------------------------------------------------------------------------------------------------------------------------------------------------------------------------------------------------------------------------------------------------------------------------------------------------------------------------------------------------------------------------------------------------------------------------------------------------------------------------------------------------------------------------------------------------------------------------------------------------------------------------------------------------------------------------------------------------------------------------------------------------------------------------------------------------------------------------------------------------------------------------------------------------------------------------------------------------------------------------------------------------------------------------------------------------------------------------------------------------------------------------------------------------------------------------------------------------------------------------------------------------------------------------------------------------------------------------------------------------------------------------------------------------------------------------------------------------------------------------------------------------------------------------------------------------------------------------------------------------------------------------------------------------------------------------------------------------------------------------------------------------------------------------------------------------------------------------------------------------------------------------------------------------------------------------------------------------------------------------------------------------------------------------------------------------------------------------------------------------------------------------------------------------------------------------------------------------------------------------------------------------------------------------------------------------------------------------------------------------------------------------------------------------------------------------------------------------------------------------------------------------------|-------------------------------------------------------------------------------------------------------------------------------------------------------------------------------------------------------------------------------------------------------------------------------------------------------------------------------------------------------------------------------------------------------------------------------------------------------------------------------------------------------------------------------------------------------------------------------------------------------------------------------------------------------------------------------------------------------------------------------------------------------------------------------------------------------------------------------------------------------------------------------------------------------------------------------------------------------------------------------------------------------------------------------------------------------------------------------------------------------------------------------------------------------------------------------------------------------------------------------------------------------------------------------------------------------------------------------------------------------------------------------------------------------------------------------------------------------------------------------------|
| <div><div>서빙고</div><div>O2. 793. 9686</div></div> <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div><div>새벽기도회</div><div>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div><div>월요 어노인팅집회</div><div>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div><div>화요Holy Impact 집회</div><div>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div><div>수요오전여성예배</div><div>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div><div>수요목양예배</div><div>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div><div>목요경배와찬양</div><div>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div><div>목요열방예배</div><div>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div><div>금요회복예배</div><div>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div><div>금요심야예배</div><div>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div><div>한마음정신회복예배</div><div>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div><div>S브릿지 예배</div><div>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div><div>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div><div>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홀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div><div>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div><div>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div><div>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div><div>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div><div>사랑부예배</div><div>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div><div>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div><div>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div><div>일본어예배</div><div>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div><div>일본어예배 수ogy기도회</div><div>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div></div> <td><div>영어예배<br/>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br/>문의: 02-3215-3685</div><div>중국어예배<br/>매 주일 13:40 경찬홀<br/>문의: 02-3215-3707</div><div>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br/>서빙고(02-3215-3730)</div><div>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div><div>안산M센터(031-491-9650)</div><div>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div><div>김포M센터(010-5007-3616)</div><div>캄보디아어 11:00 703호 / 미얀마어 11:00 706호 / 차세대꿈땅 11:00 705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몽골어 19:00 706호 / 파워웨이브 토요일 14:00 706호</div><div>화성M센터(070-8671-8091)</div><div>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div><div>평택M센터(031-651-1702)</div><div>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div><div>남양주M센터(010-3937-3927)</div><div>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일 19:30 301호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 차세대 11:00 302호</div><div>DRS 이혼자 정기예배</div><div>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div><div>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div><div>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div><div>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div><div>시간:매일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div></td> <td><div>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div><div>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div><div>한터공동체 예배</div><div>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div><div>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div><div>대청어머니기도모임</div><div>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div><div>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div><div>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div><div>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8964-5275</div><div>자녀를 군에 보낸 어머니 기도모임</div><div>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div><div>온누리선교재단 경력사원 모집</div><div>1. 서빙고 재정팀 경력사원 채용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자격: 대학교 2년제 이상, 경력 3년 이상 우대: 기업회계 경력자</div><div>2. 양재 전기팀·기관팀 경력사원 채용 업무: 전기(전기시설 및 소방관리, 전기기능사 자격증 필요), 기관(기관시설관리,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 필요) 자격: 고졸 이상, 경력 2년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div><div>2023년 하반기(8~12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 안내</div><div>일시: 3월 21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지하 2층 드림홀</div><div>자격: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라면 가능, 단 예비신랑, 신부는 등록 교인(타 교회 상관없음)</div><div>신랑: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준비: 예약금 100만 원(현금) 및 등록교인 증명서</div><div>* 예비 신랑, 신부 중 타 교회의 교인인 경우 소속 교회 '등록교인증명서' 지참</div><div>선정: 당일 오후 7시까지 참석하신 분들에게 한하여 제비뽑기 방식으로 순번 추첨 후, 순번대로 결혼예배날짜 선정 예약.</div><div>문의: 결혼예약담당(02-570-7505)</div><div>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div><div>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고인 지원 가능)</div><div>연습: 매주 토 1~4시 (추후 주일 연습 재개)</div><div>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div><div>문의: 010-8285-6435</div></td> <td><div><div>양 재</div><div>O2. 573. 9686</div></div><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1부 오전 9:00 사랑홀</div><div>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div><div>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div><div>1부 새벽기도회</div><div>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div><div>2부 새벽기도회</div><div>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div><div>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div><div>주일 오후 7:00 사랑홀</div><div>수요오전여성예배</div><div>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div><div>수요저녁예배</div><div>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div><div>금요심야예배</div><div>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div><div>브릿지33+ 예배</div><div>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div><div>매주 주일 오후 2:30, 하음조 기념홀</div><div>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div><div>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div><div>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div><div>Point5 예배</div><div>주일 오전 11:30 하음조 기념홀</div><div>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div><div>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 A 9:00)</div><div>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div><div>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div><div>도곡 차세대 9:00 예배</div><div>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div><div>도곡 차세대 11:30 예배</div><div>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div><div>도곡 차세대 14:00 예배</div><div>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div><div>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div><div>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div><div>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div><div>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div><div>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div><div>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div><div>사랑부 예배</div></div><td><div>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div><div>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div><div>프랑스어 예배</div><div>설교: Gerard Tynevez</div><div>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div><div>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div><div>스페인어예배</div><div>설교: 김종균 목사</div><div>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div><div>문의: 010-4053-2179</div><div>하나공동체 예배</div><div>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div><div>매 주일 14:00 JDS홀</div><div>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div><div>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div><div>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div><div>장소: 양재 화평홀</div><div>문의: 02-570-7277</div><div>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div><div>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랜드</div><div>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div><div>의료선교팀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div><div>일시: 3월 31일 금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div><div>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div><div>문의: 이선희 권사(010-318-0607), 조동욱 목사(010-7432-0195)</div><div>* 의료 선교 사역에 관련 있거나 관심 있는 성도님을 적극 초대합니다.</div><div>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div><div>지휘: 최영은 성가사</div><div>모집: 초 1~중 1</div><div>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div><div>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div><div>문의: 010-9927-4224</div><div>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div><div>모집: 치과 외</div><div>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div><div>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div><div>CMN 토브팀 의료진 모집</div><div>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div><div>장소: 김포M센터(아주진, 난민 의료지원)</div><div>분야: 치과 의사, 치위생사</div><div>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div><div>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div><div>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div><div>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div><div>문의: 010-8949-1811</div></td></td> | <div>영어예배<br/>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br/>문의: 02-3215-3685</div> <div>중국어예배<br/>매 주일 13:40 경찬홀<br/>문의: 02-3215-3707</div> <div>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br/>서빙고(02-3215-3730)</div> <div>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div> <div>안산M센터(031-491-9650)</div> <div>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div> <div>김포M센터(010-5007-3616)</div> <div>캄보디아어 11:00 703호 / 미얀마어 11:00 706호 / 차세대꿈땅 11:00 705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몽골어 19:00 706호 / 파워웨이브 토요일 14:00 706호</div> <div>화성M센터(070-8671-8091)</div> <div>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div> <div>평택M센터(031-651-1702)</div> <div>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div> <div>남양주M센터(010-3937-3927)</div> <div>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일 19:30 301호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 차세대 11:00 302호</div> <div>DRS 이혼자 정기예배</div> <div>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div> <div>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div> <div>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div> <div>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div> <div>시간:매일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div>                                                                                                               | <div>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div> <div>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div> <div>한터공동체 예배</div> <div>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div> <div>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div> <div>대청어머니기도모임</div> <div>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div> <div>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div> <div>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div> <div>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8964-5275</div> <div>자녀를 군에 보낸 어머니 기도모임</div> <div>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div> <div>온누리선교재단 경력사원 모집</div> <div>1. 서빙고 재정팀 경력사원 채용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자격: 대학교 2년제 이상, 경력 3년 이상 우대: 기업회계 경력자</div> <div>2. 양재 전기팀·기관팀 경력사원 채용 업무: 전기(전기시설 및 소방관리, 전기기능사 자격증 필요), 기관(기관시설관리,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 필요) 자격: 고졸 이상, 경력 2년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div> <div>2023년 하반기(8~12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 안내</div> <div>일시: 3월 21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지하 2층 드림홀</div> <div>자격: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라면 가능, 단 예비신랑, 신부는 등록 교인(타 교회 상관없음)</div> <div>신랑: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준비: 예약금 100만 원(현금) 및 등록교인 증명서</div> <div>* 예비 신랑, 신부 중 타 교회의 교인인 경우 소속 교회 '등록교인증명서' 지참</div> <div>선정: 당일 오후 7시까지 참석하신 분들에게 한하여 제비뽑기 방식으로 순번 추첨 후, 순번대로 결혼예배날짜 선정 예약.</div> <div>문의: 결혼예약담당(02-570-7505)</div> <div>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div> <div>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고인 지원 가능)</div> <div>연습: 매주 토 1~4시 (추후 주일 연습 재개)</div> <div>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div> <div>문의: 010-8285-6435</div> | <div><div>양 재</div><div>O2. 573. 9686</div></div> <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1부 오전 9:00 사랑홀</div><div>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div><div>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div><div>1부 새벽기도회</div><div>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div><div>2부 새벽기도회</div><div>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div><div>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div><div>주일 오후 7:00 사랑홀</div><div>수요오전여성예배</div><div>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div><div>수요저녁예배</div><div>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div><div>금요심야예배</div><div>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div><div>브릿지33+ 예배</div><div>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div><div>매주 주일 오후 2:30, 하음조 기념홀</div><div>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div><div>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div><div>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div><div>Point5 예배</div><div>주일 오전 11:30 하음조 기념홀</div><div>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div><div>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 A 9:00)</div><div>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div><div>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div><div>도곡 차세대 9:00 예배</div><div>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div><div>도곡 차세대 11:30 예배</div><div>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div><div>도곡 차세대 14:00 예배</div><div>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div><div>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div><div>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div><div>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div><div>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div><div>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div><div>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div><div>사랑부 예배</div></div> <td><div>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div><div>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div><div>프랑스어 예배</div><div>설교: Gerard Tynevez</div><div>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div><div>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div><div>스페인어예배</div><div>설교: 김종균 목사</div><div>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div><div>문의: 010-4053-2179</div><div>하나공동체 예배</div><div>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div><div>매 주일 14:00 JDS홀</div><div>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div><div>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div><div>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div><div>장소: 양재 화평홀</div><div>문의: 02-570-7277</div><div>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div><div>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랜드</div><div>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div><div>의료선교팀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div><div>일시: 3월 31일 금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div><div>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div><div>문의: 이선희 권사(010-318-0607), 조동욱 목사(010-7432-0195)</div><div>* 의료 선교 사역에 관련 있거나 관심 있는 성도님을 적극 초대합니다.</div><div>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div><div>지휘: 최영은 성가사</div><div>모집: 초 1~중 1</div><div>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div><div>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div><div>문의: 010-9927-4224</div><div>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div><div>모집: 치과 외</div><div>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div><div>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div><div>CMN 토브팀 의료진 모집</div><div>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div><div>장소: 김포M센터(아주진, 난민 의료지원)</div><div>분야: 치과 의사, 치위생사</div><div>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div><div>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div><div>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div><div>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div><div>문의: 010-8949-1811</div></td> | <div>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div> <div>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div> <div>프랑스어 예배</div> <div>설교: Gerard Tynevez</div> <div>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div> <div>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div> <div>스페인어예배</div> <div>설교: 김종균 목사</div> <div>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div> <div>문의: 010-4053-2179</div> <div>하나공동체 예배</div> <div>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div> <div>매 주일 14:00 JDS홀</div> <div>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div> <div>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div> <div>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div> <div>장소: 양재 화평홀</div> <div>문의: 02-570-7277</div> <div>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div> <div>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랜드</div> <div>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div> <div>의료선교팀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div> <div>일시: 3월 31일 금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div> <div>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div> <div>문의: 이선희 권사(010-318-0607), 조동욱 목사(010-7432-0195)</div> <div>* 의료 선교 사역에 관련 있거나 관심 있는 성도님을 적극 초대합니다.</div> <div>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div> <div>지휘: 최영은 성가사</div> <div>모집: 초 1~중 1</div> <div>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div> <div>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div> <div>문의: 010-9927-4224</div> <div>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div> <div>모집: 치과 외</div> <div>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div> <div>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div> <div>CMN 토브팀 의료진 모집</div> <div>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div> <div>장소: 김포M센터(아주진, 난민 의료지원)</div> <div>분야: 치과 의사, 치위생사</div> <div>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div> <div>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div> <div>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div> <div>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div> <div>문의: 010-8949-1811</div> |
| <div><div>부 천</div><div>O32. 322. 9686</div></div> <div><div>토요주일예배 9:00 본당</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div><div>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div><div>주일 차세대예배</div><div>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div><div>수요오전여성예배</div><div>매주 수 오전 10:30</div><div>한사랑예배(탈북민)</div><div>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div><div>사랑부예배(장애인)</div><div>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div><div>어린이영어예배(JEM)</div><div>오후 2:00 예꿈홀</div><div>중국어예배</div><div>오후 2:00 두란노홀</div></div> <td><div><div>수 원</div><div>O31.895.6500</div></div><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div><div>대학청년(주일)</div><div>오후 2시 비전홀</div><div>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div><div>수요오전여성예배</div><div>매주 수 오전 10:30</div><div>수요저녁예배</div><div>매주 수 오후 7:30</div><div>주일 차세대예배</div><div>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div><div>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div></div><td><div><div>대 전</div><div>O42. 825. 3642</div></div><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div><div>주중예배</div><div>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div><div>수요오전여성예배</div><div>매주 수 10:00 본당</div><div>수요저녁예배</div><div>매주 수 19:30 본당</div><div>주일 차세대예배</div><div>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div></div><td><div><div>남양주</div><div>O31.565.9686</div></div><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10:30 3층 본당</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div><div>외국어예배</div><div>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div><div>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div><div>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div><div>수요여성예배</div><div>오전 10:30 3층 본당</div><div>수요부흥예배</div><div>오후 7:30 3층 본당</div><div>차세대예배</div><div>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div></div></td></td></td>                                                                                                                                                                                                                                                                                                                                                                                                                                                                                                                                                                                                                                                                                                                                                                                                                                                                                                                                                                                                                                                                                                                                                                                                                                                                                                                                                                                                                                                                                                                                                                                                                                                                                                                                                                                                                                                                                                                                                                                                                                                                                                                                                                                                                                                                                                                                                                                                                                                                                                                                                                                                                                                                                                                                                                                                                                                                                                                                                                                                                                                                                                                                                                                                                                                                                                                                                                                                                                                                                                                                                                                                                                                                                                                                                                                                                                                                                                                                                                                                                                                                                                                                                                                                                                                                                                                                                                                                                                                                                                                                                                                                                                                                                                                                                                                                                                                                                                                                                                                                                                                                                                                                                                                                                       | <div><div>수 원</div><div>O31.895.6500</div></div> <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div><div>대학청년(주일)</div><div>오후 2시 비전홀</div><div>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div><div>수요오전여성예배</div><div>매주 수 오전 10:30</div><div>수요저녁예배</div><div>매주 수 오후 7:30</div><div>주일 차세대예배</div><div>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div><div>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div></div> <td><div><div>대 전</div><div>O42. 825. 3642</div></div><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div><div>주중예배</div><div>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div><div>수요오전여성예배</div><div>매주 수 10:00 본당</div><div>수요저녁예배</div><div>매주 수 19:30 본당</div><div>주일 차세대예배</div><div>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div></div><td><div><div>남양주</div><div>O31.565.9686</div></div><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10:30 3층 본당</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div><div>외국어예배</div><div>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div><div>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div><div>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div><div>수요여성예배</div><div>오전 10:30 3층 본당</div><div>수요부흥예배</div><div>오후 7:30 3층 본당</div><div>차세대예배</div><div>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div></div></td></td> | <div><div>대 전</div><div>O42. 825. 3642</div></div> <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div><div>주중예배</div><div>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div><div>수요오전여성예배</div><div>매주 수 10:00 본당</div><div>수요저녁예배</div><div>매주 수 19:30 본당</div><div>주일 차세대예배</div><div>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div></div> <td><div><div>남양주</div><div>O31.565.9686</div></div><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10:30 3층 본당</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div><div>외국어예배</div><div>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div><div>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div><div>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div><div>수요여성예배</div><div>오전 10:30 3층 본당</div><div>수요부흥예배</div><div>오후 7:30 3층 본당</div><div>차세대예배</div><div>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div></div></td>                                                                                                                                                                                             | <div><div>남양주</div><div>O31.565.9686</div></div> <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10:30 3층 본당</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div><div>외국어예배</div><div>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div><div>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div><div>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div><div>수요여성예배</div><div>오전 10:30 3층 본당</div><div>수요부흥예배</div><div>오후 7:30 3층 본당</div><div>차세대예배</div><div>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div></div>                                                                                                                                                                                                                                                                                                                                                                                                                                                                                                                                                                                                                                                                                                                                                                                                                                                                                                                                                                                                                                                                                                                                                                                                                                                                                                                                                                                                                                                                                                                                                                                                                                                                                                                                                                                                                                                                                                                                                                                                                                                                                                                                                                                                                                                                                                                                                                    |                                                                                                                                                                                                                                                                                                                                                                                                                                                                                                                                                                                                                                                                                                                                                                                                                                                                                                                                                                                                                                                                                                                                                                                                                                                                                                                                                                                                                                                                                     |
| <div><div>평택</div><div>O31.651.9680</div></div> <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10:30 2층 본당</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10</div><div>대학청년(주일)</div><div>14:30 3층 301호</div><div>주중예배 및 모임</div><div>수요기도모임</div><div>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div><div>수요오전여성예배</div><div>매주 수 10:30 본당</div><div>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div><div>매주 수 오후 7:30 본당</div><div>차세대예배</div><div>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div><div>새벽예배</div><div>월~금 오전 5:20 2층 본당</div></div> <td><div><div>인 천</div><div>O32.437.9686</div></div><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9:00 본당</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div><div>대학청년</div><div>16:00 본당</div><div>차세대예배</div><div>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div><div>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div><div>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div><div>수요오전여성예배</div><div>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div><div>새벽예배</div><div>월~금 오전 5:20 2층 본당</div></div><td><div><div>강 동</div><div>O2.475.9686</div></div><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11:00 본당</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div><div>차세대예배</div><div>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div><div>장애인에배</div><div>사랑부 9:00, 11:30 경찬홀</div><div>주중예배</div><div>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div><div>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div><div>금요기도회 20:00</div><div>새벽예배</div><div>오전 6:30 본당</div></div><td><div><div>양 지</div><div>O31.331.8171</div></div><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9:00 본당</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div><div>차세대예배</div><div>영아부 11:30 드림세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터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르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div><div>주일기도모임</div><div>예배중보기도모임</div><div>주일 10:30 캠벨홀</div><div>주중예배</div><div>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div><div>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div><div>새벽예배</div><div>월~금 6:00시안홀</div></div></td></td></td>                                                                                                                                                                                                                                                                                                                                                                                                                                                                                                                                                                                                                                                                                                                                                                                                                                                                                                                                                                                                                                                                                                                                                                                                                                                                                                                                                                                                                                                                                                                                                                                                                                                                                                                                                                                                                                                                                                                                                                                                                                                                                                                                                                                                                                                                                                                                                                                                                                                                                                                                                                                                                                                                                                                                                                                                                                                                                                                                                                                                                                                                                                                                                                                                                                                                                                                                                                                                                                                                                                                                                                                                                                                                                                                                                                                                                                                                                                                                                                                                                                                                                                                                                                                                                                                                                                                                                                                                                                                                                                                                                                                                                                                                                                                                                                                                                                                                                                                                                                                                                                                                                                                                                                                                                                                                                                                                                                                                                                                                                                                                                                                                                                                       | <div><div>인 천</div><div>O32.437.9686</div></div> <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9:00 본당</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div><div>대학청년</div><div>16:00 본당</div><div>차세대예배</div><div>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div><div>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div><div>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div><div>수요오전여성예배</div><div>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div><div>새벽예배</div><div>월~금 오전 5:20 2층 본당</div></div> <td><div><div>강 동</div><div>O2.475.9686</div></div><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11:00 본당</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div><div>차세대예배</div><div>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div><div>장애인에배</div><div>사랑부 9:00, 11:30 경찬홀</div><div>주중예배</div><div>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div><div>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div><div>금요기도회 20:00</div><div>새벽예배</div><div>오전 6:30 본당</div></div><td><div><div>양 지</div><div>O31.331.8171</div></div><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9:00 본당</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div><div>차세대예배</div><div>영아부 11:30 드림세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터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르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div><div>주일기도모임</div><div>예배중보기도모임</div><div>주일 10:30 캠벨홀</div><div>주중예배</div><div>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div><div>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div><div>새벽예배</div><div>월~금 6:00시안홀</div></div></td></td>                                                                                                                                                                                                                                                                                                                                                                            | <div><div>강 동</div><div>O2.475.9686</div></div> <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11:00 본당</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div><div>차세대예배</div><div>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div><div>장애인에배</div><div>사랑부 9:00, 11:30 경찬홀</div><div>주중예배</div><div>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div><div>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div><div>금요기도회 20:00</div><div>새벽예배</div><div>오전 6:30 본당</div></div> <td><div><div>양 지</div><div>O31.331.8171</div></div><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9:00 본당</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div><div>차세대예배</div><div>영아부 11:30 드림세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터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르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div><div>주일기도모임</div><div>예배중보기도모임</div><div>주일 10:30 캠벨홀</div><div>주중예배</div><div>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div><div>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div><div>새벽예배</div><div>월~금 6:00시안홀</div></div></td>                                                                                                                                                                                                                                                                                                                                                                                                                                                                                                | <div><div>양 지</div><div>O31.331.8171</div></div> <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9:00 본당</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div><div>차세대예배</div><div>영아부 11:30 드림세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터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르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div><div>주일기도모임</div><div>예배중보기도모임</div><div>주일 10:30 캠벨홀</div><div>주중예배</div><div>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div><div>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div><div>새벽예배</div><div>월~금 6:00시안홀</div></div>                                                                                                                                                                                                                                                                                                                                                                                                                                                                                                                                                                                                                                                                                                                                                                                                                                                                                                                                                                                                                                                                                                                                                                                                                                                                                                                                                                                                                                                                                                                                                                                                                                                                                                                                                                                                                                                                                                                                                                                                                                                                                                                                                                                                                                                                                                                                                                                                                                                                                   |                                                                                                                                                                                                                                                                                                                                                                                                                                                                                                                                                                                                                                                                                                                                                                                                                                                                                                                                                                                                                                                                                                                                                                                                                                                                                                                                                                                                                                                                                     |





더멋진세상  
better world



여러분의 후원이  
생명을 살리고,  
선교로 이어집니다.

2023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

더멋진세상은 전 세계 25개 국가, 24개 마을의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며  
긴급구호 활동과 난민을 돕는 국제개발 NGO입니다.

### 생명을 살리는 NGO



니바귀레 진  
(Nibagwire Jeanne, 르완다)

“  
더멋진세상이 많은 일들을 해주었는데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굶주림에 처한  
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주민들이  
자립해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

### 선교하는 NGO



폴린  
(PAULIN, 코트디부아르)

“  
공동체성경읽기를 통해 제 인생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종족어로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모두 숨을 죽이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

온누리교회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2-002535(사) 더멋진세상  
문의 02-2271-2246



정기후원



증액후원